페이열풍에 푹~ 빠진 보험社… "카드 대신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본인인증 서비스 등
카카오·네이버·삼성페이 맞손
모바일 시장 젊은층 유입 기대

보험업계가 '페이(Pay)' 열풍에 합류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험사들이 2030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등과 손잡고 보험료 납부 등 서비스를 속속들이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해온 보험료 카드납부 제도가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보험사들이 '페이' 서비스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부터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카카오페이 인증을 도입했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금융서비스 이용 시 전자서명이 필요한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고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서명을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보생명이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와 포괄적 업무협약(MOU)를 맺은 이후 첫 번째 업무제휴로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교보생명과 카카오페이의 업무제휴 협약식에서 교보생명 김욱 디지털혁신담당 전무(왼쪽 다섯번째)가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이번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업계 최초로 모바일웹 보험계약대출을 제공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교보생명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은 후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또 모바일창구 앱을 처음 이용할 시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 및 휴대폰 인증만으로 지문 등 간편인증을 등록토록 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카카오머니 송금을 통해 보험료 납부나 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 등을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구서를 등기우편 대신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청구 알림톡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인증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4월부터 카카오페이 인증을 활용한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와 손 잡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활용한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편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및 열람의 편리성을 강화했다.

장기보험 실효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들이 안내문 열람 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해 편리하게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KB손보는 현재 다이렉트 인터넷보험 가입 시 손쉽게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내로 기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 등 다양한 본인확인 절차에 카카오페이 인증 기반의 간편인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신한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들 역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과 함께 각종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와 마찬가지로 페이 역시 수수료 등이 나간다"며 "다만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으로 젊은층 유입이 기대되는 등 마케팅 효과로 업계 내 페이 열풍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메시지·보이스뱅킹 서비스 출시

IBK기업은행은 아이폰에서 모바일뱅킹 앱(App)을 실행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창과 음성비서(siri)에서 송금과 잔액조회가 가능한 '메시지뱅킹', '보이스뱅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메시지뱅킹은 문자메시지 창(iMESSAGE)에서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간편비밀번호와 생체인증(지문 또는 얼굴)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보이스뱅킹은 음성비서(siri)에서 "OO에게 2만원 보내줘", "내 통장에 얼마 있니" 등의 명령어를 말하고 생체인증을 거치면 송금과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보이스뱅킹의 송금은 고객이 지정한 6개 입금계좌로 가능하며, 잔액조회는 고객이 지정한 1개의 본인 입출금계좌에 한해 가능하다.

두 서비스 모두 'IBK 휙 서비스'를 가입해야 이용 가능하며, 하루 누적 300만

원까지 송금 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애플의 API를 활용해 금융 업무에 적용한 것으로 iOS 11 이상의 지문 또는 얼굴 인식 지원이 가능한 아이폰에서 이용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혁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이원 넥스트(i-ONE NEXT)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용카드 포인트, 알뜰살뜰 사용법은?

금감원 Q&A

Q 신용카드 포인트를 다 사용하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아쉽습니다. 심지어 가맹점이 폐업돼 포인트가 전부 사라진 경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통상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접속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적립된 포인트 잔액과 소멸 예정인 포인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교통카드 충전, 세금납부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나 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사들은 포인트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인트 이용 조건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면 포인트로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포인트만큼의 현금을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포인트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1포인트라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홈페이지, 콜센터 등에 신청해 적은 포인트라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재보험사 신규 인가 '경쟁체제'로

금융위 '손보산업 혁신·발전 방안'
매출·공시 방법 '보유보험료' 중심

기업의 보험회사 선택권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적용 폭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규 재보험사를 적극 인가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매출 관련 공시 방법을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바꿔 보험사의 실질적 위험보유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료에 위험요소 반영…'경쟁 촉진'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가 외형경쟁이 아닌 역량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공시제도·영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보험료율 산출·적용 관련 구체적 법령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사에서 반복 질의하거나 보험료율 적용 관련해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성 보험에 대해 통계요율, 협의요율, 판단요율 간에는 우선순위, 변경기준 등에 대한 규제 없이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일물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율적용의 일관성을 가진다.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산출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험사가 이를 통해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중엔 사이버보험 등 새로운

〈손해보험 보험료 분류 체계〉

구분	통계요율 : 객관적 통계		非통계요율 : 다양한 요소 결합	
	자사 통계요율	참조요율	협의요율	판단요율
산출 주체	보험사 (내부검증)	보험개발원 (금감원 신고)	재보험사 (내부통제 기준)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
산출 방법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수집, 집적한 통계에 기초하여 보험료 산출	全보험사의 통계를 집적하고 통계기법에 따라 보험료 산출	재보험사가 공개되지 않는 내부기준 등에 따라 원수보험사에 제시하는 보험료	보험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통계 및 보험인수 경험 등을 종합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유형의 보험상품 보험료를 산출해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적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각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에 언더라이팅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험평가와 계약인수에서 통계·경험을 축적한 보험사는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료 산출 시 재보험사 의존도도 축소한다. 보험사별로 선택·집중해 '판단요율'을 도입하고,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키우는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불합리한 인가·공시·규제 손본다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한다. 당국은 적정 자본금, 대주주의 재보험업 지속 영위 의지·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재보험 영업 역량 등이 적정한 경우 적극 허가하기로 했다.

보험료 경쟁을 위해선 재보험계약에 '순 재보험료방식'이 가능토록 한다. 이 점을 법규에 명시해 계약자에게 사업비 할인 등 경쟁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개선한다. 선박의 경우 500톤 미만 선박보험에 대해선 '단독인수'가 가능토록 해 보험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선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경영공시기준은 보유보험료 중심으로 개선한다. 현행 '원수보험료' 중심의 경영공시기준이 과도한 외형 경쟁을 촉발한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는 원수보험료 이외에 '보유보험료', '보유율'과 관련한 경영 공시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의 실질적 위험보유 정보를 제공한다.

방카슈랑스 판매비중규제인 일명 '25% 룰'도 손본다. 일반(단기)손해보험도 장기(저축성)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 1개월 기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방카 영업구조에 있어 보험간 균형을 회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부터 하되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선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KB락스타 청춘마루' 한달만에 '1만 명' 돌파

KB국민은행이 서울 홍대 거리에 문을 연 'KB락스타 청춘마루(사진)'가 오픈 한달 만에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했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청춘마루는 40여년간 영업점으로 운영되어 온 공간을 리모델링해 젊은 문화의 중심지 '홍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춘들이 모이고 만나는 장소로 탈바꿈한 문화공간이다.

명사들의 스토리를 직접 듣는 강연, 매월 특별한 주제의 강좌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아카데미, 홍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 문화 인사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등의 문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청춘마루는 동아리 모임 및 졸업작품 전시회 등 유스(YOUTH)고객들이 스스로 꿈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청춘들의 콘텐츠로 공간을 채워가는 열린 공간이다.

/안상미 기자